

##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SRC) 및 「KOOM Week 2026」 참석

- ▶ [FSB SRC] 외부감사 품질 제고, 사모대출 감독, 금융당국의 AI 활용 등 논의
- ▶ [KOOM Week 2026] K-스타트업 미국 진출 지원, 투자자창업자 간 네트워크 강화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미국(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개최한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 Standing Committee on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KOOM Week 2026」에 참석하였다.

### 1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SRC)

안 상임위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SRC(의장: Michelle Bowman,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부의장)에 참석하여 외부감사(External Audit) 품질 제고, 사모대출(Private Credit) 감독, 금융당국의 AI 활용 등을 논의하였다.

####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개요 】

-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금융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 ◇ (규제·감독협력상임위(SRC)) 주요 금융안정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규제·감독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

## [ 외부감사 품질 제고 ]

금번 SRC 회의에서는 지난 6월 FSB가 **외부감사(External Audits)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의 주요 논의결과를 공유하였다. 외부감사 라운드테이블은 **외부감사 품질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감사 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사모펀드(PE)의 회계·감사 법인에 대한 투자, AI 등 신기술의 영향**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사모펀드의 감사법인 투자 확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단기 이익 추구에 따른 이해상충, 감사법인의 지배구조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제기되었다. 또한 감사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류·편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적 감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유되었다.

안 위원은 외부자본의 유입과 기술 발전이 **감사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수익성이 감사 품질에 우선하거나 감사 독립성이 저하될 위험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법률상 사모펀드가 회계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사 품질 제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AI 등 신기술 활용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접근권한 통제 등 일정 수준의 관리감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례도 공유하였다.

## [ 사모대출 감독 ]

지난 5월 FSB가 발간한 **사모대출 취약성 관련 보고서**(Report on Vulnerabilities in Private Credit)를 토대로 사모대출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FSB는 사모대출이 은행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보완하는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은행·보험사·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사모대출시장의 충격이 금융권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모대출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특정 업종·기관에 대한 위험 집중도 분석,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연계성 파악 등 주요 감독과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안 위원회는 사모대출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높은 레버리지, 여타 금융회사와의 복잡한 연계 구조 등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금융안정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각국의 감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 [ 금융당국의 AI 활용 ]

회원국들은 지난 6월 FSB 총회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Sound pract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ible AI adoption) 협의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논의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선 논의가 금융기관의 AI 도입에 필요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업무상 AI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원국들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안 위원회는 이상징후 조기 탐지, 위험 모니터링 등에 AI를 활용할 경우 감독의 효율성·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AI 활용 확대와 함께 AI 모델의 설명가능성 부족 등 관련 위험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감시에 AI를 활용하여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매매 분석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민원·분쟁 업무에도 AI 도입을 추진하여, 민원 분류와 분쟁사례·판례 추천 등 소비자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 향후 업무방향 ]

회원국들은 SRC의 향후 업무방향으로 ①규제·감독 현대화, ②AI 관련 위험 대응 및 활용, ③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규제·감독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원칙’과 더불어, 회원국 간 적용 경험 공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AI 분야에서는 사이버 위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툴킷(toolkit)의 보완, AI와 금융

사기 간의 연관성 분석,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활용사례 연구 및 금융 당국의 AI 활용 경험 공유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규제체계의 차이와 국경을 넘나드는 발행·유통 활동에 따른 감독상 과제의 점검 및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KOOM Week 2026」 참석

안 위원은 뉴욕에서 「KOOM Week 2026」 금융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고, 한인창업자연합회(UKF, United Korean Founder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 한인 창업가·투자자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하여 현재 약 1,500명 이상의 스타트업·VC 회원을 보유한 한인 네트워크인 UKF가 개최하는 「KOOM Week 2026」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투자 유치, 한·미 투자자·창업자 간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 【 KOOM Week 2026 개요 】

- ◇ (개요) 한인창업자연합회(UKF, United Korean Founders) 주최로 뉴욕 맨해튼에서 10.12~18일 동안 개최되는 K-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한·미 투자자창업자 간 교류 지원 행사
- ◇ (참여대상)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VC·PE 등 투자자, 기업, 전문가 등
- ◇ (프로그램) 스타트업 IR, 창업자·투자자 네트워킹, K-브랜드 전시·판매 홍보, K-브랜드 미국시장 진출·사업협력 논의, AI 기술·글로벌 진출 관련 컨퍼런스 등

KOOM Week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융 리더십 포럼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과 미국 현지 스타트업, VC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안 위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OOM Week가 우리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한인창업자연합회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우수한 기술, 인재의 집적, 풍부한 자본, 활발한 창업·투자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벤처생태계의

특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안 위원은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확대, 모험자본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은 한국거래소가 현지 스타트업·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코스닥시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상장제도와 기업 유치 전략을 청취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시장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거래소와 견줄만한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밸류에이션 관련 지표도 높으며, 상장 비용도 저렴하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기업이 수익성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기업의 코스닥 상장절차, 성공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글로벌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코스닥시장의 브랜드 가치와 상장 매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금융산업 동향과 회사별 영업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영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위원은 한·미 관계가 전통적인 안보·외교를 넘어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의 교류와 협력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금융회사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美 진출 韓 은행(산업, 기업,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수출입)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정책국<br>글로벌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나혜영 (02-2100-288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임두봉 (02-2100-2893) |